

1990년대 중국여성서사에 나타난 ‘어머니’ 담론의 일면

- 陈染의 <另一只耳朵的敲击声>, 徐小斌 <天籁>를 중심으로 -

최 은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V. 모성애로 위장한 나르시시즘 |
| II. 권력관계로 전이된 모녀관계 | V. 나오면서 |
| III. “为你好”의 허위성 | |

I. 들어가면서

주지하다시피, 어머니됨은 여성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애정적 보살핌, 자기희생, 이타주의는 어머니다움의 본질로 정의된다.¹⁾ 모성애는 보호와 책임을 포함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다.²⁾ 때문에 여성이 ‘어머니’로 호명될 때, “어머니는 개인적인 친구 또는 가족과 연관되지 않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져서도 안 된다.”³⁾ “‘자연스러운’ 엄마는 엄마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가설이 성립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전형”⁴⁾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부교수

- 1) 베리 쏘온 외 엮음, 권오주 외 옮김, 《페미니즘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1, 21쪽.
- 2) 김영란, <젠더화된 사랑-낭만적 사랑·모성애-과 보살핌노동: 여성복지정책함의>, 《사회복지정책》18, 2004, 206쪽.
- 3) 로즈마리 퉁,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1999, 134쪽.

이타적이며 자발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감정적인 유대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는 문학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어머니’를 호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1990년대 중국의 ‘지모 열풍(地母熱)’⁵⁾은 이러한 통념적인 어머니 내지 어머니 사랑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 상은 남자-유아의 입장에서 구성된, 남아의 욕망과 불안을 투사한 상이다. 이러한 남성의 환상을 걷어내고 딸의 입장에서 서술된 어머니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 사랑과 온유의 복합체가 아니다.⁶⁾ 실제로 1990년대 중국여성서사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당대 중국에서 호명되었던 ‘지모(地母)’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어머니는 너무 유약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딸에게 역할 모델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張欣: <伴你到黎明>), 아들의 불행한 죽음을 딸에게 덧씌움으로써 딸의 행복과 존재 가치를 말살해버리기도 하고(蔣韻: <落日情節>, 徐小斌: <雨蛇>), 딸을 그저 노예로만 여기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어머니(方方: <落日>)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한 유능한 어머니이나 딸에게는 무관심하기 그지없고(王安憶: <紀實和虛構>), 이와는 반대로 딸에 대한 욕망으로 딸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⁷⁾ 딸의 입장에서 재서

4) 같은 책, 21쪽.

5) 1990년대 중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정신박약아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를 묘사한 <媽媽>, 귀머거리인 아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어머니를 보여준 <中國媽媽>, 역시 귀머거리 아들과 그 아들을 혼자 키워내는 엄마의 고군분투기인 <漂亮媽媽>, 아이들이 다 먹고 난 죽 그릇을 훔아먹으며 허기를 달래면서도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어머니 九香을 묘사한 <九香> 등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품제목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엄마나 “아름다운” 엄마라는 수식어이다. 즉, 이러한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어머니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대인 것이다.

6) 김수진,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여성이론》4, 1999, 186-187쪽.

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좋고, <1990년대 중국여성서사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중국현대문학》제38호, 2006. 참고.

술된 어머니는 성모도 아니요 피에타도 아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모성애는 없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중국여성작가들은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모녀관계 이면에 감추어진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들춰냄으로써 신화화된 모성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국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어머니 다시 쓰기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지표로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각기 연구대상으로 주목한 작가작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관점은 대동소이한 바, 가부장제에서 이상화된 이른바 어머니다움을 벗어난 어머니는 ‘惡母’형 어머니로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모녀관계는 분열과 대립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陈雪梅는 중국현·당대여성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1990년대 여성서사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적대(敌视)와 원한(仇恨)”⁸⁾으로 정리한다. 여성성장의 각도에서 1990년대 여성소설의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분석한 高小弘은 “동일시와 대치(认同与对峙)”로 풀어내기도 했다.⁹⁾ 高小弘이 모녀관계에서 ‘동일시’를 찾아낸 것은 ‘어머니’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보다 딸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 또한 1990년대 중국여성서사에 나타난 모녀관계의 대립을 분석하면서 어머니와의 대립과 갈등을 경험한 딸들이 어떻게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바 있다.¹⁰⁾ 노승숙의 경우, 陈染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분석하면서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동성애로 읽어내기도 했다.¹¹⁾ 이들 연구는 1990년대 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어머니 형상의 지형도를 잘 그려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陈染이나 铁凝

8) 陈雪梅, <从和谐到疏离与反叛—对中国现当代女性文学中母女关系书写的观照>, 《安徽理工大学学报》 2009年11月.

9) 高小弘, <认同与对峙——论20世纪90年代女性成长小说中母女关系的书写>, 《文艺评论》 2011年3期.

10) 출고, 앞의 논문.

11) <陈染小说里母女关系的瓦解: 《无处告别》与《另一只耳朵的敲击声》>, 《中国文学研究》제13집, 2008.

등처럼 어머니 형상이 서사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몇 작가작품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보다는 통시적으로 ‘어머니’ 형상의 변이를 비교분석하거나 동시대 작품들과 비교하는 등 범주화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각각의 작품이 갖는 이질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에서 이상화된, 이른바 어머니 다음에서 비껴난 어머니의 모습을 고찰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체화하고 이른바 어머니 됨을 온전히 수행하는 ‘어머니’ 형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된 바가 없다. 陈雪梅가 1990년대 모녀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어머니 형상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모성애”가 오히려 어머니와 딸을 분리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¹²⁾, 통시적으로 모녀관계를 풀어내고 있는 연구의 특성상 세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어머니 됨을 온전히 자기 정체성으로 체화한 ‘어머니’에 대한 담론에 주목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내재한 의미를 읽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를 다시 쓰고 있는 작품으로는 천란의 <无处告别>(1992), <另一只耳朵的敲击声>(1995), 徐小斌의 <天籁>(1998)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규정짓고 있는 어머니이다. 딸의 어머니이길 원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딸이 빚어내는 모녀관계를 통해 ‘어머니’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특별히 <另一只耳朵的敲击声>과 <天籁>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¹³⁾, 이들의 어머니됨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본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작품에서 문제 삼고 있는 ‘어머니’

12) 陈雪梅, 앞의 논문.

13) <无处告别>와 <另一只耳朵的敲击声>은 연작소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형상화나 모녀관계의 서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另一只耳朵的敲击声>에 더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우선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가 어머니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라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갖는 이면을 짚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II. 권력관계로 전이된 모녀관계

조세핀 도노번에 의하면, 모친과 딸은 동일한 성별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밀접한 동일시와 강렬한 정서적 연대를 향한 공통의 성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여성의 정서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계속해서 존재한다.¹⁴⁾ 초도로우는 어머니와 딸의 유대관계를 여성정체성 형성과 연결 지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보다 더 명백하게 만들어 준다.¹⁵⁾ 리치 역시 “강한 애정, 확인, 본보기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여러 세대를 걸쳐 여성으로부터 여성에게로 계속 이어지기 전까지, 여성은 여전히 황야를 헤매고 있을 것”¹⁶⁾이라며 어머니와 딸의 연대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성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딸의 유대관계가 필수적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란과 쉬샤오빈은 유대관계인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권력관계로 변이될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되짚고 있다.

천란의 <另一只耳朵的敲击声>을 보면, 이 작품은 과부인 어머니와 이혼

14) 조세핀 도노번 지음, 김익두 옮김,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7, 203쪽.

15) 초도로우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공생적 병합체로 인식하는 어머니와 비슷하게 닮아감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모-유아의 공생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만 한다. 그녀는 여성의 인격을 ‘관계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이것이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되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성인격이 지니는 이러한 유동적이고 과정적인 성질은 특히 딸과 어머니의 관계로부터 야기된다. 딸은 어머니와의 유아적 동일시를 통해 감정이입과 공생적 융합을 위한 능력을 획득한다. 따라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모녀 유대관계의 특수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쥬디스 키건 가디너,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5, 225-230쪽.

16)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303-305쪽.

녀인 딸의 공생기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상호 의존하는 친밀한 모녀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희생적인 사랑 앞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변모되어 있다. 이들의 이러한 관계의 출발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있어 딸은 삶의 전부이다. 어머니는 딸 파이얼이 자신의 “유일한 열매”이며 지친 삶의 “버팀목”이라고 고백한다. 그 뿐인가. 딸은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마지막 풀 한 포기”이고, 그녀와 운명이 벌이는 도박판에서 “가장 찬란한 마지막 한 수”이다.

딸이 삶의 전부가 된 어머니는 딸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매일 밤 딸이 자신의 침상 곁을 지키길 원하고, 딸이 자신의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딸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내 딸”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엄마와 딸이 1인칭 화자로서 고백하는 부분과 3인칭 화자의 서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엄마의 고백에서 딸을 지칭하는 표현은 “내 (딸) 파이얼”로 되어 있다. “내”라는 경계 긋기는 파이얼이 오로지 엄마인 그녀에게만 속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에게 있어 딸은 당연히 그녀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녀는 “내 딸 파이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험하고 깊은 산봉우리와 계곡에 매달려” “언제든 닦칠 수 있는 재앙을 내 몸과 내 목숨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딸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짓고 있는 것이다.

보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한 엄마의 모습은 외부세계와 딸을 철저히 단절시키고자 하는 데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녀는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면서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한다. 엄마의 시선에서 바깥세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간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파이얼은 그저 이용만 당하거나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이얼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모녀갈등은 시작되고, 엄마는 파이얼을 그(녀)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파이얼의 어머니가 그녀의 종적을 잡아내는 능력보다 더 그녀를 껌짝

놀라게 하는 것은 없을 정도다. 하늘 아래 가장 뛰어난 탐정적인 재능이다. 그녀는 내가 여기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세상에서 나를 빼고 내가 이뉘린이라는 여인을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중략)

방안의 모든 벽은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천정에 매달린 등불마저도 파이얼의 친애하는 어머니를 향해 애교를 부렸다. 모든 방안이 그녀의 냉혹한 눈빛에 꼼짝 못 하고 숨죽일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

파이얼의 어머니는 이뉘린을 직시했다. 증오에 찬 싸늘한 눈빛이 이뉘린의 살갓으로 파고들었다. 파이얼의 어머니는 몸의 모든 격투역량을 자신의 눈빛에 다 모아서 이뉘린을 향해 내쏘았다.

마침내, 파이얼의 어머니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툭 내던지듯 말을 꺼냈다. “부디 내 딸을 끌어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부디 내 딸이 못된 짓 하도록 유혹하지 말아요. 파이얼은 좋은 아이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의심할 바 없는 권위와 모종의 절대적인 점유로 넘쳐났다.¹⁷⁾

난 벌써 마슈즈랑 그 이뉘린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 그 사람들, 네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냐. 널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저 그럴 뿐이야, 순진해선 안 된다, 파이얼!(137쪽)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얼에 대한 욕망이 빚어낸 그녀의 모습은 강력한 지배자이자 통제자이다. 파이얼은 “살아서도 내 것이고, 죽어서도 내 것”이라는 엄마의 고백은 지배자로서 딸을 소유하려는 엄마의 광기어린 욕망인 것이다.

쉬샤오빈의 <天籟> 역시 어머니와 딸의 유대관계를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관계로 풀어낸다. 이 작품은 중국 서북지역 한 산골마을에 사는 세이세이(岁岁)와 그녀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이다. 딸 세이세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화얼(花儿)¹⁸⁾을 잘 부른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르는 화얼을 들으면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17) 陈染, <另一只耳朵的敲击声>, 《无处告别》, 江苏文艺出版社, 2005, 129-130 쪽. 이하 작품인용은 본문에 표기한다.

18) 중국 青海, 甘肃, 宁夏, 新疆, 西藏 등 서부지역 민가를 가리킨다. 중국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화얼은 그녀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잊도록 만든다. 어머니 우미야오(吳苗)는 지식인이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드문 마을에선 “전문가”로 꼽히면서, 어르신들도 다 그녀를 존중해준다. 무엇보다 그녀는 맹인이 된 딸을 애지중지 돌본다.

그때 세이세이는 어려서 아직 걱정을 몰랐다. 어쨌든 돌봐주는 엄마가 있어서, 우선 그녀부터 먹고 입히고 하니, 그녀는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었다. 그녀가 다진 마늘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어머니는 바로 2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뛰어가서 신선한 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와, 끓인 물에 넣어 피를 빼내고 아주 얇게 잘라서 큰 조각으로 만든 다음, 다진 마늘과 소금과 조미료를 넣어 버무리고 다시 매운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요리를 했다. 빨간 것은 빨강고 흰 것은 희어서, 보기만 해도 돌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어 보였다. 어머니는 한 입도 맛보지 않고, 딸이 고기 한 접시를 다 먹는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다가 다 먹으면 그릇을 씻었다.¹⁹⁾

표면적으로 볼 때, 맹인인 딸과 그런 딸을 애지중지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상적인 모성으로 줄곧 재생산되어 온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전형이다. 그러나 쉬샤오빈은 여기에서 한 발 비껴나, 딸을 향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통제와 지배욕을 도출해낸다. 이는 우미야오가 세이세이를 화얼 황후로 ‘만드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세이세이의 어머니는 문화선전단의 조장으로부터 세이세이를 문화선전전단에 보내자는 제안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안을 한 조장조차 의구심을 갖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이세이의 엄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외딸인 세이세이밖에 없어서 그녀를 무척 아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미야오는 바로 승낙한다. 뿐만 아니라, 세이세이를 보내놓고 오히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

19) 徐小斌, <天籟>, 《蜂后》, 长江文艺出版社, 2001, 50쪽. 이하 작품인용은 본문에 표기한다.

다”(49쪽). 왜 그러는가. 세이세이의 어머니에게 있어, 문화선전단의 단원이 되는 것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세이세이가 처음 보는 상점의 물건들에 마음이 빼앗겨 시험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자 분노한다.

못난 년!.....키워주려고 해도 안 돼! 보기 좋아? 뭐가 보기 좋아? 상점이 보기 좋다고 네 것이 될 성 싶으냐? 하찮은 상점 하나를 하루 온종일 돌아다녀? 세상 물정 모르는 년 같으니!..... 하느님이 너에게 피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쓸 줄을 몰라! 노래하는 사람에게 눈이 뭘 쓸모가 있다고? 보기 좋았다고, 내가 널 아무 것도 못 보게 만들어 주마! (50쪽)

세이세이 어머니의 분노에 찬 나무람에 마을 사람들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서술은 “그녀가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서술에 나타난 그녀의 평소 모습과 대조되어, 분노의 깊이와 정도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마을 약천수를 사용하여 딸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나타나듯, 시력은 인간의 주체성을 상징한다. 때문에 우미야오가 딸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딸에 대한 그녀의 통제와 지배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맹인이 된 세이세이는 엄마의 바람대로 화열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화열 황후로 뽑히면서 순식간에 평범한 맹인 산골소녀에서 유명한 화열 가수로 재탄생하게 된다. 화열 가수가 된 후 세이세이의 일상은 엄마에 의해 결정된다.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화장을 하며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화열을 부를 것인지를 세이세이 대신 엄마가 정하는 것이다. 세이세이의 삶이지만, 여기에 세이세이는 없다.

이리가레이에 따르면, 오늘날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어머니’는 단지 제한적인 의미만을 부여받는다. 어머니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제공받지 못하며 그녀가 갖는 의미도 출산의 순간이나 성욕과 관계되는 개념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창조력은 남성만

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머니는 양육과 보호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인물로 전락한다. 어머니라는 용어가 갖는 중요성이 축소되면서 여성들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자제나 극기, 무가치한 존재,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한 모성을 강조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²⁰⁾ 파이얼과 세이세이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지배와 통제는 바로 이러한 왜곡된 자기희생적인 모성이 낳은 결과라고 본다. 이들은 어머니됨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존재의 희미함은 무명(無名)화에서 나타난다. 파이얼의 어머니는 “파이얼의 모친”일 뿐, 이름이 없다. 우미야오 역시 딸이 화열 가수로 이름을 떨치기 전까지는 그저 “세이세이 엄마”로, 우미야오라는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제한된 기능만 부여받은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어머니 됨을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딸에 대한 소유욕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Ⅲ. “为你好”의 허위성

권력관계로 전이된 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너를 위해서”라는 엄마의 변에 있다. 파이얼의 어머니는 파이얼을 외부세계와 차단하면서 “엄마는 늘 네 편에서 생각한다”는 말로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세이세이의 어머니 역시 딸의 눈을 빼앗아버린 죄책감을 “딸을 위해서”라는 말로 가린다. 세이세이가 맹인이 된 후부터 화열을 진짜 잘 부르게 되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를 인정한다는 것, 때문에 세이세이가 화열을 잘 부르게 된 것은 결국 자기가 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도록 만들면서, 죄의식을 희석시키는 매개가 된다. 딸이 자신처럼 불운한 팔자로 살지 않는 것이 평생소원이라는, 그래서 딸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딸을 위해 무엇이든 다 했다”는 ‘엄마’ 우미야오의 변(辨)이 그녀 행동에 대한 부당함

20) 램 모리스 지음,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217쪽.

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를 위해서”라는 엄마의 변은 지배와 피지배로 왜곡된 모녀관계를 정당화하고,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당위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주장이 “상대를 나에게 붙들어놓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상대를 자신의 의지에 복속시키려는 지배행위”²¹⁾가 될 때, 딸을 위해서라는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은 “타자를 지배하려는 동기를 갖는 것”²²⁾임을 이들의 관계는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것이 딸의 입장에서 서술될 때, 그 사랑은 허위성을 노정한다. 이는 딸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파이얼은 어머니가 ‘사랑’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을 “옛봄”과 “감시”로 본다. 어머니가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은 “심장을 후비는 날카로운 검”이 되어, 그녀가 “바깥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102쪽) 파이얼이 느끼는 어머니와 자신의 삶은 “정탐”과 “정탐을 피하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 “어디든 있고 무엇이든 다 하며 어느 구멍이고 다 들어오는” 사랑의 “옛봄”으로 인해 “그녀의 모공 하나하나는 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아무 때고 오는 염탐을 막기 위해 그녀는 모든 모공에 다 빗장을 걸어 뒤편한다.”(132쪽) “거대하지만 형체 없는 그물”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정탐과 반(反)정탐이 주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파이얼은 13층에서 뛰어내리고픈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을 팔아서라도 어머니와 분리된 완벽한 자신만의 공간을 얻기를 갈망한다. 어머니의 “사랑의 옛봄”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과 벗어나고픈 욕망은 그녀의 꿈을 통해 가시화된다.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흔들흔들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 다음, 나는 차가운 손가락이 가볍게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확 눈을 떴다. 여인 같은 한 형체가 머리 꼭대기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까만색

21) 이종영, 《사랑에서 악으로-권력의 원천에 대한 연구》, 새물결, 2004, 82쪽.

22) 같은 책, 82쪽.

천으로 몸을 감싸고 내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중략)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 까지 소름이 확 끼쳤다. (중략) 파이얼이 아무리 변해도 파이얼의 어머니는 알아보는데, 어째서 파이얼은 자기 어머니를 못 알아보는 거지?

이뒤런은 그녀를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녀가 깜짝 놀라 죽을 뻔 했잖아.”

잠시 후, 나는 어질어질한 상태로 이뒤런을 따라 그녀의 방으로 갔다. 나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선 어떻게 해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한참 후, 나는 은밀하니 신비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그 집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옆방의 그 여인에게 말해 줘.

이뒤런이 대꾸했다. 그녀는 네 엄마야.

나는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어떻게 내 엄마일 수가 있어? 내 엄마 아냐.(107-108쪽)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실현되지 못한 욕망을 드러낸다.²³⁾ 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욕망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욕망으로,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관심을 사야했던 욕망이다.²⁴⁾ 파이얼의 꿈에서 온통 까만 옷차림으로 침대 앞에 서 있는 어머니는 저승사자를 연상시킨다. 저승사자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꿈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파이얼의 내면에서 어머니는 삶을 앗아가는 저승사자와 다름 아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여인을 내 엄마가 아니라고 강하게 거부하며 피하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주시하는 눈빛과 그녀를 계속 곁에 두길 원하는 어머니의 욕망에 지쳐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좋은 아이”일 수밖에 없는 파이얼은 꿈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엄마의 사랑에 대한 파이얼의 거부감은 그녀가 엄마와 살았던 도시를 P라는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현실의 이름을 버리고 영문 이니셜로 표기된 공간은 현실의 어떤 곳이 아니라 무국적의 공

23) 프로이트 지음, 임진수 역주, 《꿈과 정신분석》, 계명대출판부, 2002, 26쪽.

24) 같은 책, 60쪽.

간이 된다.²⁵⁾ 다이얼이 어머니와 살았던 고향을 무국적화, 탈현실화 하고 있는 것은 현실 속 모녀관계에 대한 기억을 부정 또는 탈피 심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이얼이 엄마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곳은 명시화-런던-하고 있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쉬샤오빈 또한 자기의지를 회복하려는 딸의 몸짓을 통해 어머니 '사랑'의 허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미야오의 순진한 딸인 세이세이는 우연히 자신이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충격으로 그녀는 호텔을 뛰쳐나가고, 다음날 세이세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우미야오와 무대연출자인 티엔리(田力)는 전전긍긍한다. 세이세이를 찾아 헤매다 결국 못 찾고 돌아온 그들은 세이세이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녀가 하루 사이에 많이 "꼳다"고 느낀다. 쉬샤오빈은 특별히 그녀의 먹기를 통해 그 변화를 알린다.

두 사람은 앞뒤로 집으로 들어갔고 한번 둘러보고 모두 냇을 잃어 버렸다. 세이세이 혼자서 넓은 거실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빨갱게 부은 데다 초췌해 보였다. 그러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된 것 같았고 마치 한 번에 아주 많이 커버린 것 같았다. 더 두려운 것은 그녀가 밥을 먹는 자세였다. 그 가득 차 있던 식탁의 음식들을 이미 반이나 먹어버렸지만 그녀는 얼굴색도 바꾸지 않고 계속 먹고 있었다. 마치 암컷사슴 한 마리도 다 삼켜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74쪽)

냅에 의하면, 식욕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먹는 행위를 넘어서서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허기와 갈망, 필요와 관련된 것"²⁶⁾이다. 그런데 허기에 압도되어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몸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느끼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고 설명 불가능한 것을 설명

25) 이선옥, <독자의 달라진 기대지평과 모성소설의 도전>, 《오늘의 문예비평》 69호(2008년 여름호), 262쪽.

26) 캐럴라인 냅 지음, 임옥희 옮김,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가》, 북하우스, 2006, 13쪽.

하도록 몸의 행태와 강박과 충동을 허용하게 된다.”²⁷⁾이렇게 보자면, 세이세이의 식욕은 자기 자신의 삶을 빼앗김으로 인한 결핍에서 야기된 것이다. 사슴 한 마리도 다 삼켜버릴 듯한 세이세이의 허기와 이러한 그녀의 허기가 발산하는 두려움은 바로 언어를 넘어서버린, 그녀가 느꼈을 고통의 무게가 가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어머니에 의해 좌지우지된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녀에게 있어 먹기는 자신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녁 공연을 이유로 “먹고” 있는 세이세이를 저지하는 어머니에 대해,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공연을 잊을 수 있겠냐며 차갑게 응수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먹기’가 신체적인 행위를 넘어선, 엄마에 대한 저항을 내포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자신에 대한 거부는 공연을 앞두고 화장 받는 내내 반복해서 화장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그녀는 무대에서 쓰러짐으로써 엄마가 만든 자신을 벗어낸다.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흩어져 버린다. 세이세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거둬버림으로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딸과 어머니의 분열은 딸을 위해서라는 어머니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 사랑은 어머니의 자기희생과 헌신과 극기라는 소위 모성애의 왜곡된 형태이다. 때문에 그것이 딸에게 부여되었을 때 딸은 자기 삶의 결핍을 느끼면서 어머니와 대치하는 것이다.

IV. 모성애로 위장한 나르시시즘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을 때 자기희생적인 사랑인 모성애가 딸의 입장에서는 허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천란과 쉬샤오빈은 여기에서 어머니의 자기애를 본다.

27) 같은 책, 283쪽.

다이얼의 어머니를 보자. 딸을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며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풀 한 포기로 비유하는 고백에서 나타나듯이, 그녀에게 딸은 그녀 자체이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 유일한 장인 것이다. 때문에 딸의 상실은 곧 자신의 정체성 상실이다. 죽음도 무섭지 않은 그녀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다이얼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것”이다. 다이얼이 성장해가면서 점점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마음이 갈가리 찢어졌다”는 그녀의 고백은 존재가치 상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발로이다. 다이얼을 향한 엄마의 욕망은 이 같은 두려움에 대한 과보상 행위이자 자아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⁸⁾ 외부세계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다이얼 엄마의 행위는 이러한 욕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슬픔으로 인한 고통, 자기애적인 상처”²⁹⁾에 기반을 둔 질투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질투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나를 상대방에게 절대적 대상으로 만들어 상대가 나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투는 나르시시즘에 기초한다. 나르시시적 현상은 내가 타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타자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다.³⁰⁾ 다이얼 엄마의 사랑이 나르시시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다이얼의 사랑이 다이얼에 대한 자신의 사랑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가시화된다는 점이다.

딸을 맹인으로 만들고도, “딸을 위해서”라는 엄마 우미야오의 변이 문제적인 이유도 자아도취를 내장한 자기애를 사랑으로 위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 서론>에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란 사실 “그들이 오래 전에 포기했던 그들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현시키는 행위”라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이

28) 베른하르트 A.그림 지음, 박규호 옮김, 《권력과 책임》, 도서출판 청년정신, 2002, 29쪽.

29) 프로이트 지음, 황보석 옮김, 《역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 책들, 1997, 181쪽.

30) 이종영, 앞의 책, 81쪽.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도록 강제하는데, “이 모든 것은 현실의 압박을 심하게 받아 자아의 불멸성이 위협을 받는 부모의 나르시시즘이 자식에게서 피난처를 찾아 안정된 위치를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란 결국 “부모의 나르시시즘이 대상으로 변모”된 것일 뿐이다.³¹⁾ 프로이트의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세이세이에 대한 엄마 우미야오의 ‘사랑’이 내재한 본질을 읽을 수 있다. 우미야오는 “두메산골의 시골아낙”들과 자신은 다른 사람임을 분명히 한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자이는 “유명한 작곡가이자 가수였던” 젊은 시절의 자아이다. 젊은 시절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그 시절 작곡과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자부심과 그러한 자기 이름을 왜 들어본 적이 없느냐는 질책어린 타박에서 읽혀진다. 한창 정치적인 이유로 밀려났다고 믿는 그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만다. 이러한 그녀에게 딸 세이세이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인 것이다.

딸을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한 매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과도함이다. 세이세이를 발굴한 방송국의 연출자 장산(張山)은 세이세이의 재능에 감탄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그 우려는 우미야오 때문이다. “어머니로서 마음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중략), 그녀는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 그가 발견한 우미야오의 과도함은 화열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 데에 있다. 이는 과거 “유명한 작곡가”로서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우미야오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욕망 앞에서 세이세이와 세이세이의 목소리는 우미야오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한 장이다. 그녀의 바람대로, 세이세이가 유명해진 순간 그녀는 세이세이의 어머니인 동시에, 유명한 작곡가이자 가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된다. 다른 하나는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읽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세이세이는 눈이 멀게 된 후부터 자신을 비참하게 여겨왔

31) 프로이트 지음, 윤희기·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12, 69-70쪽.

다. 그녀가 보기에, 화얼은 송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에 불과하다. 우미야오가 그녀에게 천재성을 투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녀는 오직 눈을 고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우미야오는 세이세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인지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세이세이는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해주는 것과 별개로, 그녀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어머니가 저에게 잘 해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이세이가 느끼는 두려움, 거리감과 위화감은 ‘딸을 위해서’라는 우미야오의 사랑이 기실 자신의 욕망 실현에 기반하고 있다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해 세이세이는 당연히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딸이 목소리와 외모를 천부적으로 타고 났다고 믿으며, 딸을 맹인으로 만들면서까지 그녀를 세계적인 화얼 가수로 만들고자 하는 우미야오, 그녀에게 있어 딸 세이세이는 우미야오의 이상적인 자아의 재현이자 우미야오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사라 루딕은 “구속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아라는 탐욕스러운 유기체에 전유하지 않고, 현실의 대상(현실의 자녀)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지”³²⁾를 어머니일 수행방식의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 이는 배려이다. 나르시시즘으로 위장한 모성애는 자기중심적이기에 이 “배려깊은 사랑, 애정 있는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가장 강렬한 애착이지만, 이는 분리, 포기,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³³⁾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분리에 있다. 분리를 원하고 지지할 때 어머니의 사랑은 비이기적이 된다. 때문에 어머니가 분리를 원하는가 분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가는 진실로 사랑하는 어머니인지를 가리는 방법이다.³⁴⁾ 파이얼의 어머니와 세이세이의 어머니인 우미야오가 보여주듯,

32) 베리 쏘온 외 엮음, 권오주 외 옮김, 《페미니즘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1, 119쪽.

33) 같은 책, 119-120쪽.

어머니가 아이를 그녀 자신 또는 일부로 보면서 그녀 자신을 투사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랑은 나르시시즘적인 만족일 것이다.

V. 나오면서

이상, 천란과 쉬샤오빈의 작품을 통해 딸의 어머니로 자신의 정체성을 체화하고 모성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 어머니는 가부장제에서 신화화한 어머니의 그것이다.

그러나 천란과 쉬샤오빈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이면에 자리한 모성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동시대 여타 여성작가들이 모성이 결핍된 어머니를 통해 모성을 전복하고 어머니를 재서술하는 것과 달리, 어머니 됨을 수행하는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다시 쓴다. 천란은 딸을 소유하려는 어머니를 통해, 쉬샤오빈은 딸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어머니를 통해, 이들이 딸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이 기실은 자신의 존재가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실현에서 출발한 것임을 보여준다. 천란과 쉬샤오빈이 보기에, 이것은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으로 위장한 모성애는 통제와 지배욕으로 점철되어, 결국 어머니와 딸의 분열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 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기실 허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희생 등을 속성으로 하는 모성애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이는 여성(어머니)에게 부여되는 모성애가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되어 여성(어머니)다움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할 것이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천란과 쉬샤오빈이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34) E.프롬 지음, 권오석 옮김, 《사랑의 기술》, 홍신문화사, 2010, 66-67쪽.

분석한 사랑의 본질이 기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보편적인 '어머니' 수행에 대해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이 그 '사랑'의 이면을 포착하여 드러낸 이러한 본질은 사실 딸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모성수행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지하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또는 홀시하고 싶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일 수행이 내장하는 불편한 진실들이다. 불편하지만 홀시하고자 하는 것은 가부장제가 규정한 어머니다움 또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환상성을 벗어났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기대에 타자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천란과 쉬샤오빈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본다. 이들은 이로부터 '어머니'가 안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함을 설파한다. 그렇지 않는 한, 파이얼의 어머니나 세이세이의 어머니가 단지 파이얼 또는 세이세이의 어머니만은 아닐 것이며, 스스로에게서 또는 주변에서 수많은 파이얼의 어머니와 세이세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 Adrienne Rich.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Seoul: PyungMinSa, 1995.
- Barrie Thoren.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Seoul: Hanwool Academy, 1991.
- Bernhard A.Gr imm. *Macht und Verantwortung*. Seoul: Youngsoul, 2002.
- Caroline Knapp. *Appetites: Why Women Want*. Paju: BOOKHOUSE Publishing CO.,LTD, 2003.
- Chen, Xue-Mei. From harmony to alienation to revolt—reflections o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 in Chinese modern and contemporary feminine literature. *Journal of Anhu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4, 2009.

Choi Eun Jeo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 and mother, and the daughter' growth appeared in Chinese novels of 1990's written by female writers. *The Journal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Vol.38, 2006.

Erich Fromm. *(The)art of loving*. Seoul: Hong Shin Publising CO., 2010.

Gao Xiao-Hong. Rentongyuduichi. *LITERATURE AND ART CRITICISM*, Vol.3, 2011.

J. Kristeva et al. *Feminism and Literature*. Seoul: MoonYe Publising CO.,LTD, 1995.

Josephine Donovan. *Feminist Theory: The Intellectual Traditions*. Seoul: MoonYe Publising CO.,LTD, 1997.

Kim,Su-Jin. Line resistance in normal and pathological gender boundaries. *Female theory*, Vol.1,1999.

Kim,Young-Lan. Gendered Love -Romantic Love and Maternal Love- and Caring Labour. *Social Welfare Policy*, Vol.18, 2004.

Li, Zhong Yong. *In love evil - research on the source of power*. Seoul: Saemulgyeol, 2004.

Lho Sung Sook. A Study On ChenRan's Novels - <Wuchugaobie> & <Ringyizhierduodeqiaoqisheng>. *The Journal of CHINESE CULTURAL STUDIES*, Vol.13, 2008.

Sigmund Freud. *Oppression, symptoms, and anxiety*. Seoul: The Open Books Co.,LTD, 1997.

Sigmund Freud. *Dreams and psychoanaly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2002.

Sigmund Freud.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Seoul: The Open Books Co.,LTD, 2012.

Pam Morris. *Literature and Feminism*. Seoul: MoonYe Publising CO.,

LTD, 1997.

Tong, Rosemarie.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Seoul: Hansin MunHwasa, 1999.

<Abstract>

This thesis looks into a mother showing her maternal instinct, identifying herself as a daughter's mother depicted in Chenlan and Xuxiaobin's works. The mother sacrificing herself for and dedicating herself to her daughter shows typical mothers mystified in a patriarchal society. Chenlan and Xuxiaobin, however, pay attention to different aspects of maternal instinct on the other side of maternal sacrifice and dedication. By depicting a mother wanting to own her daughter, and projecting her own desire in her daughter, Xuxiaobin reveals that the love shown 'on behalf of her daughter' actually started with the fear for losing her existential values, egoistic love-based desire for power and dominance. That is, her love is a result of narcissism disguised in the name of maternal love. Narcissism-motivated maternal love is infested with control, dominance and the desire for possession, inflicting misery upon both's lives. This proves that maternal love for children is, in fact, falsity. Especially, the authors demystify the maternal ideology by revealing that maternal dedication and love can become an object of terror to children. The maternal love with unconditional dedication or sacrifice as its attributes is questionable.

Key Words : 모성애(maternal love), 권력(dominance), 지배(control),
나르시시즘(narsism), 공포로서의 모성(Motherhood as a fear)

